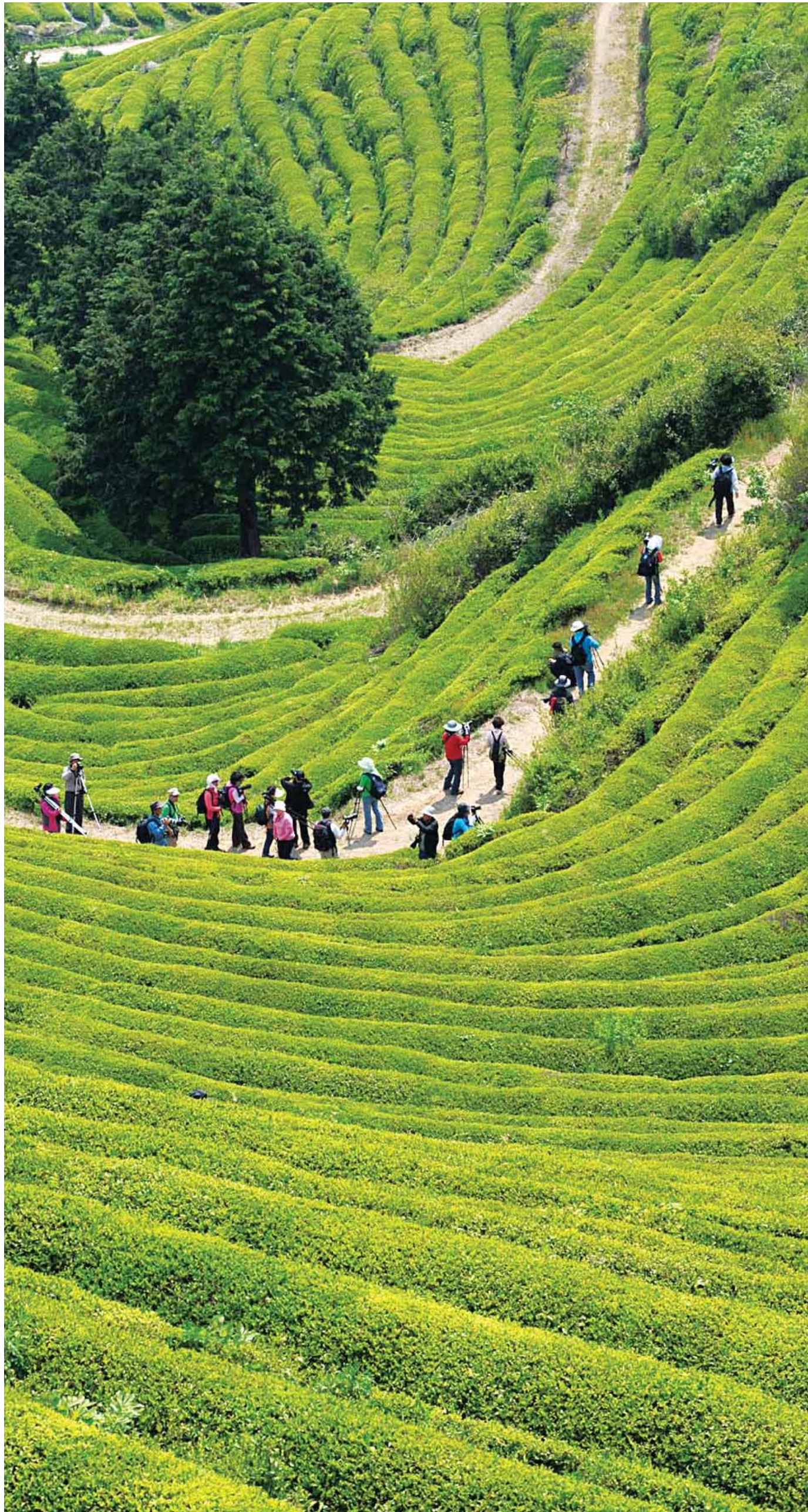


그윽한茶香·굽이굽이 눈부신 자연...신이 내린 '녹차 수도'



지난 13일 계단식으로 조성된 독특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보성 녹차밭을 찾은 관광객들이 한가롭게 사진을 찍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농업유산 전남의 '오래된 미래'

2 보성 계단식 차밭

기후·토양 등 녹차 재배지 안성맞춤 50만평의 차밭 전국 녹차 40% 생산도, 품종 개발·생산 시스템 연구 활발

이곳에서 고백하면 토라진 그대로 한 번쯤은 뒤돌아 볼 것 같다. 끝없이 펼쳐진 질푸른 차밭에서 아낙들이 새 잎을 수확하는, 물결처럼 굽이치는 계단식 차밭에 세상을 피해 몸을 숨겨도 넉넉할 것 같은, 원수를 만나도 가벼운 눈인사 정도는 나눌 것 같은 곳. 보성 녹차밭은 바로 그런 곳이다. 생각만 해도 땀으면서도 감칠맛 나는 녹차 향이 머릿속 가득 향긋하게 퍼지는 '신이 내린 아름다움'. 보성 녹차밭을 국가농업유산과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해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현대인에게 쉼과 여유를 주기 때문이다.

▲보성만의 특징 간직=보성은 전국 녹차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산지답게 고개를 살짝 돌리자마자 계단식 녹차밭이 눈에 들어온다.

보성은 한국차의 본고장이다. 녹차는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가 맞물리는 진흙이 섞인 보드라운 흙에서 잘 자란다. 비도 찾아야 하고, 연평균기온이 13℃ 이상이어야 향긋한 차맛을 얻을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 등 옛 책에 따르면 이곳은 예부터 차나무가 자생하고 있어 녹차가 만들어져 왔다. 특산물 송곡마을을 이름이 다 전(茶田)으로도 불린다.

본격적으로 지금의 녹차밭이 조성된 것은 지난 1939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황산산 자락 일대에 30ha가 조성된 후 면적이 점차 확대됐다. 일반인에게 유명한 녹차밭은 대한다원이다. 입구의 삼나무 숲이

참 매력적이어서 영화와 광고 등에 자주 등장했던 곳이 이곳이다. 50만 평에 차밭이 조성돼 있고 삼나무, 관백, 은행나무, 주목 등 300여만 그루의 방풍림이 멋진 풍경을 만들어냈다.

보성군이 녹차밭을 농업유산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곳만의 특성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제주도, 하동, 사천 등지와는 다르게 보성은 계단식 녹차밭을 유지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또 차잎을 따고 뒤는 등 고단한 일을 주민들이 나눠서 하는 자발적인 지역공동체가 형성돼 있는 것도 농업유산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어 주는 요소다.

▲냉해에 시름하는 녹차밭=지난 13일 보성군 보성을 일대 녹차밭을 찾았을 때는 우전차 수확이 끝나 적막했다. 머리에 수건을 둘러싼 아낙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가슴 아프게도, 최근 보성 녹차밭은 그 푸름을 잃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동해(凍害) 피해가 나작황이 좋지 않고,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마저 늘어 잡초가 무성하게 피어 있었다.

보성군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1006 농가가 1064ha의 차밭을 일구고 있다. 이곳의 차 재배 면적은 전국 차 재배면적(3264ha)의 34% 차지하고 있고, 차 가공·유통업체도 9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또 전남농업기술원 녹차연구소와 보성녹차가공유통센터, 한국차박물관, 세계파식물원 등이 보성 녹차의 우수성을 연구하고 알리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녹차를 사고 팔면서 생기는 경제적 효과는 300억 원, 관광객 유치 등을 포함한 파급효과는 5012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인원 237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에 의한 수입이 날로 늘고 있다.

하지만 재배면적이 해마다 줄고 있고, 동해로 인한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재배면적은 지난 2010년에 비해 2011년 34ha가 줄었다. 생산량도 같은 기간 1224t에서 891t으로 급감했다. 상품성 있는 차잎을 찾아보기도 힘들어졌다. 이에 전남도는 동해에 강한 10여 가지 신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보성 녹차밭이 농업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돈이 되지 않아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이 늘수록 보성 녹차밭의 아름다움은 조금씩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

보성군 관계자는 "차 산업 육성을 위한 고품질 차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유통구조를 튼튼하게 하고 기계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 중이다"면서 "이를 통해 녹차밭이 농업유산으로 보존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녹차 재배농 소득하락 '위기'

凍害 잇따르고 커피 잠식...소득 78% 감소

보성 녹차밭을 국가농업유산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정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농가들이 이곳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녹차를 재배하고, 생산·판매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등재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전남 녹차 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잇단 동해(凍害) 피해에다 원두커피와 대용차의 위세에 시장을 절반 이상 잠식당했다. 보성지역에도 4곳의 커피전문점이 성행하고 있고, 녹차 판매점은 영업부진으로 문을 닫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17일 전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산하 식품경영연구소가 도내 54개 작목을 대상으로 2012년산 농산물소득을 조사한 결과 녹차는 10a당 소득액이 19만4564원으로 2011년(87만7028원)에 비해 77.8%나 감소했다.

필요한 경비를 빼지 않은 주수입은 10a당 90만9000원으로 경영비 71만4000원을 빼고 나면 소득은 20만원 이하로 떨어지고 소득률은 20%대 초반에 그쳤다. 30개 노지재배 작물과 24개 시설재배 작

목 가운데 감소율이 가장 컸다. 녹차를 재배해도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녹차의 시간당 노동생산성도 6096원으로 가장 낮았다. 하우스 무(4만8327원)에 비해서는 8배, 쪽파(4만6498원)보다는 7.6배, 가을배추(4만2440원)에 비해서는 7배나 생산성이 낮았다.

본향(本郷) 전남에서 녹차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데는 우선 수요 감소가 1차적 요인이 되고 있다. 원두커피와 대용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최근 3~4년 새 소비량 기준 판매량이 30~40%가량 줄었다. 여기에 2010년부터 해마다 계속된 동해로 재배농가 상당수가 피해를 입으면서 한때 1600~2000t 가량을 생산해 전국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던 생산량도 700~800t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28석, 16석 룸완비)

구분	영업시간	성인(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5~7세)
평일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토·일·공휴일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유스퀘어점

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봉골레 Yonggole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herb crispy chicken steak ₩10,800
핫 스파이시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10,800	허니고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